



윤석민 첫 실전 피칭 제구력 'OK' 스피드 '아직'

재활 45일만에 2군 마운드 ... 30이닝 5피안타 2실점



“이제 시즌을 시작할 기분이다.” 어깨 통증으로 재활을 해왔던 KIA 에이스 윤석민이 45일만에 마운드에 섰다. 윤석민은 16일 강원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넥센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실전 피칭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일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후 처음으로 오른 마운드다. 윤석민은 “한 달이 넘은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피칭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빠른 페이스인 것도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막 캠프를 시작한 것처럼 감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윤석민의 평가처럼 첫 등판 결과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이날 윤석민의 성적은 30이닝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2실점.

1회 2루수 땅볼에 이어 외야 플라이 두 개로 이닝을 마무리 한 뒤 2회에는 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기도 했다. 3회에는 선두타자 김지수의 타구가 1루수 옆을 빠진 뒤 이창섭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1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3개의 내야 땅볼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지만 4회 안태영, 박현도, 지재욱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63개의 공을 던진 이날 윤석민의 최고 스피드는 143km. 1회 140km를 찍었지만 143km를 넘지 않았다. 윤석민의 주무기인 고속 슬라이더도 135km에 머물렀고, 체인지업과 커브는 각각 124km, 117km를 찍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점검한 어깨통증 여부와 제구는 'OK'.

윤석민은 “어깨 상태와 컨디션은 100%다. 앞선 볼넷 피칭에서는 스트라이크가 너무 안 들어가서 걱정을 했는데 제구는 생각보다 잘 이뤄졌다. 변화구 제구도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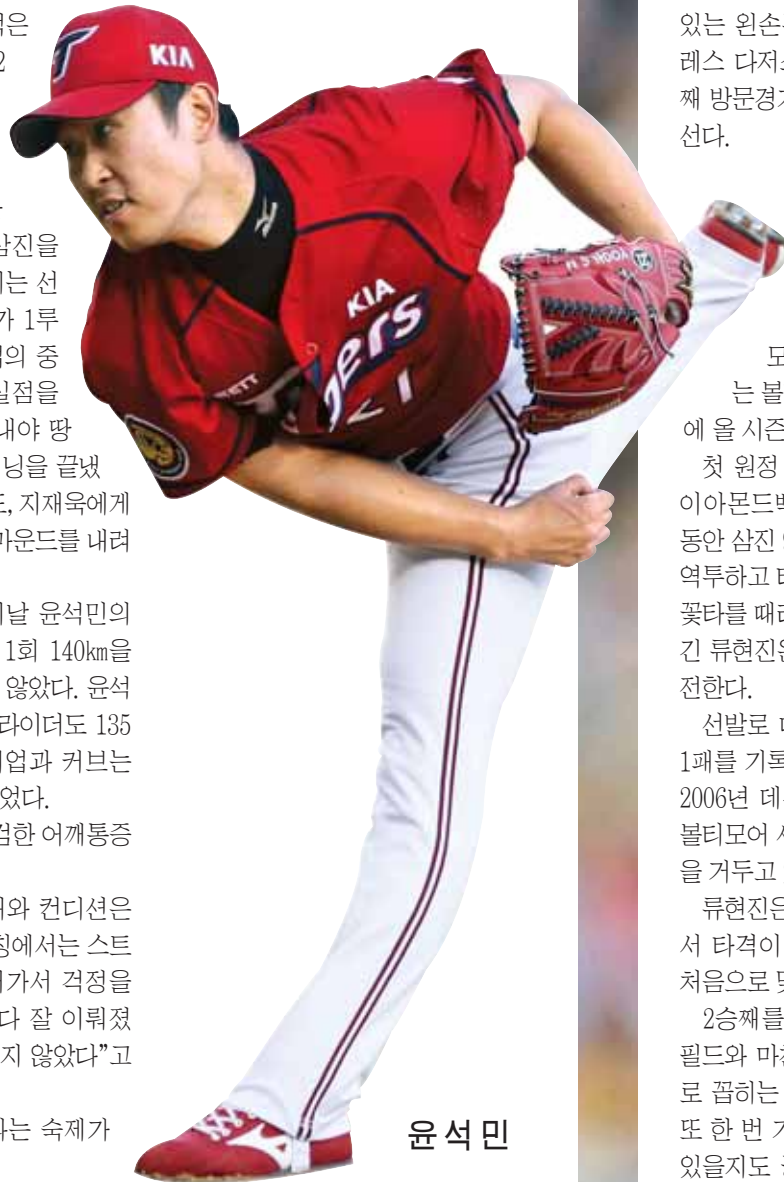
하지만 ‘힘과 감’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윤석민은 “공을 제대로 채지 못하고 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직구와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30km가량 나기 때문에 타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타자들의 방향이 쉽게 나왔다. 부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100%로 공을 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첫 실전 등판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끝난 윤석민은 이번 주말 2군 연습경기에서 다시 실전 피칭을 소화한다. 이 경기에 따라서 1군 복귀 시점이 결정된다.

윤석민은 “마음이 급하기는 하다.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잘 던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다. 복귀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윤석민과 기념촬영 야구팬 “귀농하기 잘했어요”

① 프로야구 말말말

▲그 공으로 야구를 하더라도=얼마전 재활 훈련을 위해 한 초등학교를 찾았던 윤석민, 야구부 학생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은 뒤 그 공으로 야구를 하더라며.

▲한 공으로 굴러다녀요=윤석민, 다시 찾은 초등학교에서 발견한 한 공에 자신의 사인이 되어있더라며.

▲귀농하기 잘했어요=윤석민과 기념촬영을 한 부부 야구팬, 얼마전 강진으로 귀농을 했는데 윤석민과 사

진을 찍게 됐다며, 윤석민은 이날 강진의 인기 스타가 됐다.

▲이제 싸우기만 하면 돼요=초반 난조로 2군에 내려간 박지훈, 벨런스와 구위는 좋아졌다면서.

▲5연승에 도전합니다=외야수 이준호, 2군이 4연승을 달리고 있다며, 이준호의 바람과 달리 KIA는 이날 넥센에 3-4 역전패를 당했다.

▲외야가 복잡해지지=박철우 타격코치, 강진 베이스볼 파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외야 수비하기가 힘들다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7년 만의 희생번트 6연패 위기서 팀을 구하다



13경기 연속 출루도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

미국 프로야구(MLB) 신시내티 레즈의 톱타자 추신수(31)가 개막이후 13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이날로 4경기 연속 안타를 친 추신수는 개막전부터 13경기를 치르는 동안 매번 출루에 성공했다. 추신수의 타율은 0.354에서 0.353으로 약간 떨어졌다.

세차례 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난 추신수는 2-2로 맞선 8회말 무사1루의 기회에서는 투수인 희생 번트를 때려 1루 주자 데릭 로빈슨을 2루로 보냈다. 신시내티는 코츠의 2루타, 제러미 호스트의 고의 사구로 1사 만루의 기회를 이어간 뒤 브랜든 필립스의 2타점짜리 적시타로 4-2로 다시 앞서 나갔다.

신시내티는 9회초 마무리로 올라온 아를리스 채프먼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5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인터리그 출격

20일 볼티모어전 3승 도전

‘괴물’의 진가를 서서히 인정받고 있는 왼손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두 번째 방문경기에서 시즌 3승 사상에 나선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2선발 자리를 굳힌 류현진은 20일 오전 8시 5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파크에서 열리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4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첫 원정 등판인 14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속아내며 3실점으로 억투하고 타석에서 3타수 3안타의 불꽃타를 때리며 시즌 2승(1패)째를 챙긴 류현진은 여세를 몰아 3연승에 도전한다.

선발로 대결할 투수는 똑같이 2승 1패를 기록한 우완 제이슨 해밀이다. 2006년 데뷔해 탬파베이, 콜로라도, 볼티모어 세 팀에서 통산 44승(52패)을 거두고 있다.

류현진은 이번 첫 인터리그 등판에서 타격이 강한 아메리칸 리그팀과 처음으로 맞닥뜨린다.

2승째를 따낸 애리조나주 체이스 필드와 마찬가지로 타자친화 구장으로 꼽히는 오리올파크에서 류현진도 한 번 기세 좋게 타자를 압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다음 등판에서



LA 다저스 류현진

실점하지 않겠다”던 류현진의 약속이 이뤄질지도 흥미롭다.

인터리그는 아메리칸 리그팀과 내셔널 리그팀이 서로 맞붙는 정규리그 경기다. 양 리그 팀의 대결은 월드 시리즈에서나 가능했으나 팬들의 흥미를 돋우고자 1997년 도입됐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로 옮겨 양 리그가 15개 팀으로 재편되면서 올해부터 인터리그는 1년 내내 벌어진다. 지명 타자제도를 시행하는 아메리칸 리그에 속한 볼티모어의 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류현진은 이번 등판에서 타석에 들어설지 않는다. 다시 말해 타석에 들어선 투수를 비교적 쉽게 돌려세운 내셔널 리그와 달리 류현진이 타격이 센 아메리칸 리그의 지명타자와 맞서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2013’ 발간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2013’이 발간됐다.

이효봉 XTM 해설위원을 대표 저자로 장원구 스포츠 칼럼니스트, 안승호(스포츠크럼), 김식(중앙일보) 기자 등이 공동저자로 참가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투수들의 구종별 피칭존 및 타자들의 상대투수별 히팅존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투수가 2012년에 던진 전체 구종은 물론 ‘세컨드 피치’와 ‘서드 피치’를 어디로 많이 던졌는지 흐린 색부터 진한 색까지 6단계로 구분해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타자의 경우 상대 투수별(좌·우) 히팅 존, 스프레이 존, 볼카운트별 타율, 주자 상황별 타율을 상세하게 분



석해 제공한다. 히팅 존의 경우 타율에 따라 파란색, 하늘색, 베이지색, 오렌지색, 빨간색 등 5단계의 핫&콜드 존으로 나눠 타자의 강-약 코스를 바로 알 수 있게 구성해놓았다.

이밖에 ▲선발 투수진 ▲중간 투수진 ▲마무리 ▲클린업 트리오 ▲테이블 세터 ▲포수 ▲내야외 수비진 등의 정보를 스페셜 리포트에 담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